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와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의 관계

윤성욱 · 이은숙 · 박영남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Subjective oral status perception and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management amo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university students

Sung-Uk Yoon · Eun-Sook Lee · Young-Nam Park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ng-Uk Yo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College-Park(St), 214 Gimcheon 740-704, Korea, Tel : +82-54-420-4275, Fax : +82-54-420-4465, E-mail : sunguk3794@naver.com
Received: 2 February 2015; Revised: 20 May 2015; Accepted: 30 July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bjective oral status perception and OHIP according to the oral health management amo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university students.

Methods: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76 domestic and 175 international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from August 25 to November 1, 2014. The informed consent was received after explanation of the purpose of the study by the researcher.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oothbrushing behavior, oral health management, subjective oral status perception, and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The subjective oral status perception and OHIP was measured by Likert 5 point scale.

Results: The international students tended to have higher subjective oral status perception when they had longer stay with the roommate in Korea. The female international students tended to have higher OHIP than the male students. The domestic students with lower grades and roommates showed higher OHIP. The international students had a poorer practice of oral health management than domestic students. The overall mean of subjective oral status perception was 3.13 in domestic students, and 3.09 and 3.22 in international students. The overall mean of OHIP was 4.21 in domestic students and 4.25 and 4.16 in the international students.

Conclusions: International students had a higher subjective oral status perception than domestic students, but their wrong oral health management lowered their quality of lif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oral health management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continuously.

Key Words: oral health management, OHIP, subjective oral state perceptions

색인: 구강건강관리실태, 구강건강영향지수,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로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¹⁾.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의 수도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학위 과정이나 구체적인 학업

목표를 달성하고 학업을 마치면 귀국할 것임이 전제되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²⁾. 2012에서 2013년 국가통계포털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60,466명으로 2008년 40,585명보다 현격히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39,386명, 베트남 3,760명, 일본 2,184명 등으로 중국인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로 인적자원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의 국제화를 달성하고³⁾ 대학시장을 개방하여 국내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넓히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자원 유치를 위함이다. 2009년에는 체계적인 유학생 선발, 정주여건 개선, 유학생 지원 전담인력 및 온라인 서비스 구축 사업 등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⁴⁾.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⁵⁾. 이렇듯 점점 늘어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타국에서 공부한다는 그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해결 되어야 할 장애요인이 있다. 즉 사회적 환경, 건강적 문제, 의료문제, 언어문제, 경제적 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은 의료문제, 언어문제라고 보고되었다⁶⁾. 특히 건강문제는 학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어려움이 있다⁶⁾. 이처럼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건강문제로 고통을 참으며 생활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즉 유학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학업을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건강문제의 일부본인 구강건강은 음식물 섭취를 통한 영양분의 흡수와 전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⁷⁾. 따라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의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강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구강건강이 악화되어도 언어소통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의 건강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⁸⁾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함으로 병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 등의 요인들로 구강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업수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⁹⁾. 이런 구강건강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효율적인 학업생활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구강구강건강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심리적인 불편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도구는 구강건강영향지수(Oral Health Impact Profile)로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측

정하는데 이용된다¹⁰⁾. 이렇듯 외국인 유학생의 삶의 질을 높여 국내에 잘 적응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대한 조사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의 조사는¹¹⁻¹³⁾ 다수 이루어졌으나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에 대해 비교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실태를 알아보고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따라 현재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와 구강건강 요인으로 인한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하여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도와 삶의 질의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증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8월 25일에서 11월 1일까지 대구, 경북의 일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 외국인 대학생 총 360부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를 제외한 35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국내 대학생은 남성 82명, 여성 94명으로 176명이었으며,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인 96명, 베트남 23명 필리핀 4명 등의 국적을 가진 남성 53명, 여성 122명으로 175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이후 설문이 실시되었다.

2. 연구도구

설문지 작성은 김¹¹⁾과 전 등¹²⁾의 연구도구를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강건강을 위한 관리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칫솔질 행태, 구강위생용품 사용유무 등 구강건강관리실태 8문항, 본인의 현재 구강상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는 ‘현재 자신의 구강상태는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인의 치아관리 습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3문항으로 하였으며 구강건강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심리적인 불편감을 측정하는 구강건강영향지수(OHIP)는 타당성이 인정된 도구로서 구강건강과 관련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구강상태인식도와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은 Likert의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상태인식도와 구강건강영향지수(OHIP)가 높다는 것을 의미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건강관리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따른 구강상태인식도와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의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의 측정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로 검증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0.918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은 여학생이 69.7%로 남학생보다 많으며 학년은 3학년이 33.1%로 가장 많고 4학년이 16.0%로 가장 적었다. Roommate의 유무는 '유'가 82.9%이며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 63.4%이다. 학비조달은 장학금이나 부모가 84.0%로 나타났고 흡연은 하지 않은 경우 80.0%이며 음주의 유무는 각각 49.1%, 50.9%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내국인 대학생은 여학생이 53.4%, 남학생이 46.6%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3학년이 30.1%로 가장 많았다. Roommate의 유무는 '유'가 83.0%이며 건강보험은 92.6%가 가입되어 있었다. 학비조달은 부모나 장학금이 90.9%로 나타났으며 흡연유무는 92.6%가 비흡연자였으며 음주는 71.0%가 음주를 하는 것

으로 응답하였다<Table 1>.

2.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와 OHIP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외국인 유학생은 남학생이 3.24로 여학생 3.21보다 높았지만 국내 대학생은 여학생이 3.14로 남학생 3.0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외국인 유학생은 1학년이 3.41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p < 0.05$) 국내 대학생은 4학년이 3.19로 가장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roommate의 유무는 '무'인 경우 3.48로 '유'인 경우 3.1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반대로 국내 대학생은 roommate가 '유'인 경우 3.17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가입된 경우 3.19, 가입되지 않은 경우 3.28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국내 대학생은 가입된 경우 3.11, 가입되지 않은 경우 2.84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비조달은 본인이 3.36, 부모나 장학금이 3.20으로 본인이 조달하는 경우가 높았으나 국내 유학생은 본인 3.04, 부모나 장학금 3.10으로 부모와 장학금이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 흡연의 유무는 각각 3.20, 3.23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내 대학생의 흡연유무는 비흡연자인 경우가 3.10으로 약간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음주의 유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국내 대학생의 음주의 유무는 각각 3.13, 3.01로 음주를 하는 경우 약간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OHIP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은 여학생이 4.26으로 남학생 3.9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국내 대학생은 남학생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International students		Domestic student	
		N	%	N	%
Gender	Men	53	30.3	82	46.6
	Female	122	69.7	94	53.4
Grade	1	41	23.4	41	23.3
	2	48	27.4	34	19.3
	3	58	33.1	53	30.1
	4	28	16.0	48	27.3
Living with roommate	Yes	145	82.9	146	83.0
	No	30	17.1	30	17.0
Health insurance	Yes	111	63.4	163	92.6
	No	64	36.6	13	7.4
Educational expenses	Self-pay	28	16.0	16	9.1
	Parents+Scholarship	147	84.0	160	90.9
Smoking	Yes	35	20.0	13	7.4
	No	140	80.0	163	92.6
Alcohol consumption	Yes	86	49.1	125	71.0
	No	89	50.9	51	29.0

Table 2. Subjective oral status perceptions and o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ization	Division	Oral status awareness M±SD				OHIP M±SD			
		International students	p-value*	Domestic university student	p-value*	International students	p-value*	Domestic university student	p-value*
Gender	Men	3.24±0.41	0.740	3.04±0.60	0.223	3.94±0.67	0.002	4.25±0.68	0.943
	Female	3.21±0.51		3.14±0.49		4.26±0.60		4.26±0.57	
Grade	1	3.41±0.58	0.002	2.99±0.59	0.356	4.45±0.44	0.003	4.43±0.50	0.008
	2	3.27±0.49		3.05±0.58		4.18±0.72		4.15±0.67	
	3	3.05±0.28		3.12±0.43		3.99±0.71		4.38±0.60	
	4	3.22±0.55		3.19±0.59		4.05±0.041		4.04±0.66	
Living with roommate	Yes	3.17±0.56	0.001	3.08±0.38	0.386	4.19±0.56	0.266	4.34±0.88	<0.001
	No	3.48±0.45		3.17±0.57		4.04±0.65		3.83±0.52	
Health insurance	Yes	3.19±0.47	0.262	3.11±0.55	0.086	4.15±0.64	0.795	4.28±0.63	0.085
	No	3.28±0.50		2.84±0.37		4.18±0.64		3.96±0.49	
Educational expenses	Self-pay	3.36±0.43	0.095	3.04±0.60	0.656	4.13±0.63	0.747	4.29±0.84	0.794
	Parents+Scholarship	3.20±0.49		3.10±0.54		4.17±0.64		4.25±0.60	
Smoking	Yes	3.20±0.49	0.729	3.02±0.36	0.623	4.21±0.66	0.612	4.25±0.74	0.980
	No	3.23±0.48		3.10±0.56		4.15±0.63		4.25±0.62	
Alcohol consumption	Yes	3.22±0.45	0.965	3.13±0.55	0.189	4.24±0.62	0.111	4.26±0.66	0.814
	No	3.22±0.52		3.01±0.53		4.09±0.65		4.24±0.53	

*by t-test or one-way ANOVA

Table 3. Oral health management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university students

Division		International students	Domestic students	p-value*
		N(%)	N(%)	
Toothbrushing frequency	1	9(5.1)	3(3.4)	0.002
	2	111(63.4)	87(43.9)	
	3≤	55(31.4)	86(48.9)	
Toothbrushing area	Teeth	34(19.4)	2(1.1)	<0.001
	Teeth, gums(tongue)	70(40.0)	96(57.8)	
	Teeth, gums, tongue	71(40.6)	78(52.3)	
Toothbrushing time (minutes)	1	26(14.9)	12(6.8)	0.001
	2	96(54.9)	79(44.9)	
	3≤	53(30.3)	85(48.3)	
Toothbrushing education	Yes	31(17.7)	121(68.8)	<0.001
	No	144(82.3)	55(31.3)	
Toothbrushing method	Horizontal method	53(30.3)	57(32.4)	0.191
	Vertical and Rolling method	39(22.3)	26(14.8)	
		83(47.4)	93(52.8)	
Using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Yes	80(45.7)	104(59.1)	0.212
	No	95(54.3)	72(40.9)	
Scaling experience	Yes	79(45.1)	97(55.1)	0.039
	No	96(54.9)	79(44.9)	
Dental clinic visit in one year	Yes	54(30.9)	74(42.0)	0.019
	No	121(69.1)	102(58.0)	
Necessity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159(90.9)	162(92.0)	0.418
	No	16(9.1)	14(8.0)	

*by t-test or one-way ANOVA

여학생 각각 4.25, 4.26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은 외국인 유학생은 1학년이 4.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p<0.05$). 국내 대학생도 1학년이 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roommate의 유무는 외국인 유학생은 ‘유’인 경우 4.19로 ‘무’인 경우 4.04보다

높았다. 국내 대학생은 roommate가 ‘유’인 경우 4.34, ‘무’는 3.83으로 ‘유’인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의 유무는 비슷했으며 국내 대학생은 가입한 경우 4.28로 높게 분석되었다. 학비조달의 방법과 흡연의 유무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에서 큰

Table 4. Subjective oral state perceptions and ohip according to oral health management among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university students
Unit : Mean±SD

Division		Oral status awareness			OHIP		
		International students	Domestic university student	p-value*	International students	Domestic university student	p-value*
Toothbrushing frequency	3 ≤	3.34±0.51	3.29±0.49	0.556	3.88±0.67	4.27±0.67	0.001
Toothbrushing area	Teeth, Gums, Tongue	3.23±0.49	3.26±0.49	0.629	4.16±0.67	4.33±0.62	0.126
Toothbrushing time(minutes)	3 ≤	3.07±0.49	3.27±0.51	0.038	4.09±0.59	4.31±0.63	0.025
Toothbrushing education	Yes	3.37±0.46	3.10±0.57	0.093	4.05±0.75	4.27±0.61	0.016
Toothbrushing method	Rolling method	3.36±0.52	3.21±0.53	0.300	4.22±0.67	4.32±0.61	0.049
Using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s	Yes	3.22±0.46	3.27±0.54	0.560	4.00±0.65	4.13±0.71	0.268
Scaling experience	Yes	3.17±0.49	2.90±0.44	<0.001	4.17±0.63	4.35±0.58	0.061
Dental clinic visit in one year	Yes	3.23±0.42	3.18±0.52	0.566	4.00±0.67	4.05±0.68	0.710
Necessity of oral health education	Yes	3.18±0.45	3.11±0.55	0.234	4.12±0.63	4.23±0.64	0.109
Total		3.22±0.55	3.09±0.48	0.021	4.16±0.64	4.25±0.63	0.183

*by t-test or one-way ANOVA

차이가 없었다. 음주의 유무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유’인 경우 4.24, ‘무’가 4.09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국내 대학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서 칫솔질 빈도는 3번 이상에서 외국인 유학생 31.4%, 국내 대학생이 48.9%로 국내 대학생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칫솔질 닦는 부위는 치아, 잇몸, 혀까지 전체적으로 잘 닦는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 40.6%, 국내 대학생 52.3로 국내 대학생이 높았다($p<0.05$). 칫솔질 시간에서 3분 이상 닦는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30.3%, 국내 대학생 48.3%로 국내 대학생이 높았다($p<0.05$). 칫솔질 교육을 받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생 각각 17.7%, 68.8%로 국내 대학생이 높았다($p<0.05$). 칫솔질 방법에서 회전법으로 닦는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47.4%, 국내 대학생 52.8로 국내 대학생이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구강위생용품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45.7% 국내 대학생 59.1%로 나타났다. 스케일링을 받은 경험 유무는 외국인 유학생 45.1%, 국내 유학생 55.1%로 국내 대학생이 높았다($p<0.05$). 지난 1년 동안 치과방문을 방문한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30.9%, 국내 대학생 42.0로 국내 대학생이 높게 분석되었다($p<0.05$)<Table 3> .

4.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와 OHIP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의 전체 평균은 3.13이며 국내 대학생은 3.09, 외국인 유학생은 3.22로 현재 본인의 주관적 구강상태에 인식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OHIP의 전체 평균은 4.21이며 국내 대학생은 4.25, 외국인 유학생은 4.16으로 국내 대학생의 OHIP이 높게 나타났다. 칫솔질 빈도 3회 이상에서 국내 대학생의 OHIP는 4.27로 외국인 유학생 3.88보다 높았다($p<0.05$). 칫솔질 소요시간 3분 이상에서 주관적 구강상태 인식도와 OHIP가 각각 3.27, 4.33으로 국내 대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칫솔질 교육을 받은 경우는 국내 대학생 OHIP가 4.27로 외국인 유학생 4.05보다 높았다($p<0.05$). 회전법으로 닦는 칫솔질 방법은 국내 대학생의 OHIP가 4.32로 외국인 유학생 4.22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스케일링 경험이 있는 경우의 주관적 구강상태 인식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3.17로 국내 대학생 2.90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Table 4>.

총괄 및 고안

우리나라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력 확보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또는 신입생 유치를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⁴⁾.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유학생할 가운데 안정적인 학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남자 53명, 여자 122명으로 175명과 국내 대학생 남자 82명, 여자 94명으로 176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구강건강관리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느끼고 있는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에서는 학년과 Roommate의 유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p<0.05$). 학년이 1~2학년 경우 각각 3.41, 3.27, 3~4학년은 각각 3.05, 3.22로 저학년인 경우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가 높았다. 최와 송¹³⁾은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1년 이상인 경우보다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생활 초반에는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¹³⁾ 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Roommate는 있는 경우가 3.17로 없는 경우 3.48보다 낮았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생과 Roommate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내 대학생과 비교가 됨으로서 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음으로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가 낮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OHIP는 성별과 학년에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p<0.05$), 성별은 여성이 4.26으로 남성 3.94보다 OHIP가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구강건강 관련으로 불편감을 덜 느낀다는 말이며 신¹⁵⁾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관리를 잘 했을 것이라 예상하며 그 결과 OHIP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은 1학년이 4.45로 가장 OHIP가 높았다. 김¹¹⁾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왕과 이¹⁶⁾는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능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체류기간이 짧은 1학년인 경우에 구강건강관심도와 더불어 대학생활의 적응능력이 높아 심적인 것과 신체적인 요인에서 OHIP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국내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OHIP는 학년과 Roommate의 유무에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p<0.05$), 학년은 외국인 유학생과 동일하게 1학년이 4.43으로 가장 높았으며 4학년이 4.04로 가장 낮았다. 권과 이¹⁷⁾는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감수성은 20세 미만이 가장 높다고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인 경우 구강건강에 민감하게 대처한다는

말이며 그 결과 구강건강으로 인한 불편감은 다른 학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OHIP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이 어려워지며¹⁸⁾ 4학년인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국내 대학생 모두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 등의 준비로 많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구강건강관리가 소홀이 되어 OHIP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대학생은 Roommate가 있는 경우 4.34로 없는 경우 3.83보다 OHIP가 높게 나타났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같은 방을 쓰는 동료가 있으므로 구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좋은 대인관계를 위해 구강관리에 영향을 주어 OHIP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는 칫솔질 빈도가 3회 이상인 경우, 칫솔질 부위가 치아, 잇몸, 혀를 전체적으로 잘 닦는 경우, 칫솔질 소요시간이 3분 이상인 경우, 칫솔질 교육을 받은 경우,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경우, 1년 안에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외국인 유학생보다 국내 대학생이 높았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p<0.05$). 이는 배³⁾의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 특성을 비교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생보다 올바른 구강관리를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한⁶⁾은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생활 가운데 신체적인 건강문제 중 구강질환이 40.2%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올바르게 못한 구강관리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여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대학측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와 OHIP의 결과 칫솔질 빈도 3회 이상, 칫솔질 소요시간 3분 이상, 칫솔질 교육을 받은 경우, 회전법으로 닦는 칫솔질 방법,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유의성을 나타냈고($p<0.05$),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의 전체 평균은 3.13이며 국내 대학생은 3.09, 외국인 유학생은 3.22로 현재 본인의 구강상태에 인식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배³⁾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외국인 유학생은 자신의 구강은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OHIP의 전체 평균은 4.21이며 국내 대학생 4.25, 외국인 유학생 4.16으로 국내 대학생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즉 본인이 느끼는 구강건강상태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생에 비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구강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인 불편감은 외국인 유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국내 대학생에 비해 경제적인 문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치과 진료를 받을 기회가 적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이나 자국에서의 올바른 구강관리지식의 부재와 의지부족 등으로 바른 구강관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주관적 구강

건강상태 인식은 국내 대학생에 비해 높지만 OHIP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구강건강을 포함한 건강문제는 화목한 가정, 안정된 직장, 경제적, 전문적인 자질 등 행복조건 즉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¹⁹⁾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만족한 유학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면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이나 건강상태를 정확히 측정하여 정부나 대학 차원에서 그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유학생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따른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하였으며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한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그에 따른 전문적인 구강보건프로그램의 개발과 정확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중국인 유학생에 치중되어 국적별로 구강건강과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 점과 선진국 유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외국인 유학생 175명, 국내 대학생 176명을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식도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다.

1.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는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 1학년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구강상태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Roommate는 '무'가 3.48로 '유' 3.17보다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가 높았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OHIP는 외국인 유학생에서 여학생 4.26, 남학생 3.9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OHIP가 높았고 학년은 1학년이 4.45로 학년이 낮을수록 OHIP가 높게 분석되었다. 국내 대학생도 1학년이 4.43으로 낮은 학년일수록 OHIP가 높게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에서 Roommate는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OHIP가 높았다.
2.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는

칫솔질 빈도 3번 이상에서 외국인 유학생 31.4%, 국내 대학생이 48.9%로 국내 대학생의 빈도가 높았으며 칫솔질 닦는 부위는 치아, 잇몸, 혀까지 닦는 경우 외국인 유학생 40.6%, 국내 대학생 52.3로 국내 대학생이 전체적으로 잘 닦고 있었다. 칫솔질 소요시간 3분 이상 닦는 경우 외국인 유학생 30.3%, 국내 대학생 48.3%로 국내 대학생이 칫솔질 닦는소요 시간이 길었다. 칫솔질 교육을 받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생 각각 17.7%, 68.8%로 국내 대학생이 칫솔질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았다. 스케링을 받은 경험 유무도 외국인 유학생 45.1%, 국내 유학생 55.1%로 국내 대학생이 스케링 받은 경험이 많았으며 지난 1년 동안 치과방문을 방문한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30.9%, 국내 대학생 42.0로 국내 대학생이 치과 방문 경험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생에 비해 구강건강관리 면에서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다.

3.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의 전체 평균은 3.13이며 국내 대학생은 3.09, 외국인 유학생은 3.22로 현재 본인의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OHIP의 전체 평균은 4.21이며 국내 대학생은 4.25, 외국인 유학생은 4.16으로 국내 대학생의 OHIP이 높게 나타났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생에 비해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 인식도는 높지만 구강건강 요인으로 인한 삶의 질은 낮게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생에 비해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인식도는 높지만 올바르게 못한 구강건강관리로 인해 그들의 구강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수학하는 동안 구강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도록 도모해야 하며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속된 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건의료에 관련하여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Im AJ. Dental hygienist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actual condition survey of education[Master's thesis]. Yongin: Univ. of Dankook, 2011.
2. Hwang H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student adaption to college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2007.

3. Bae MS. Related factors with health behaviors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 of Yeungnam, 2009.
4. Ju HS. Learning experie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university. *J Res Educ* 2010; 36: 135-59
5. Kim SN. A study on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nhancing chinese students' college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J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2007; 10(1): 185-206.
6. Lee NY, Han LY. Health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 East-West Nurs Res* 2011; 17(1): 48-56.
7. Lee HO, Yang CH, Kim J, Kim YI. Domestic disabled people's Use of dental service institutes and their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J Dent Hyg Sci* 2009; 9(5): 593-600.
8. Kim SJ, Lee SH, Kim SY, Kim AL, Park HT, Lee YJ. Migrant workers' quality of life related to health. *Korean J Adult Nurs* 2008; 20(5): 791-803.
9. Jung SH. mission work of interior foreign worker in medical hospital[Master's thesis]. Seoul: Univ. of Chongshin, 2009.
10. Slade GD. Derivation and validation of a short-form oral health impact profil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97; 25(4): 284-90.
11. Kim SJ. A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with a focus on Chines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1): 17-26.
12. Jeon ES, An SY, Choi YH. Migrant multi-cultural family women's life quality related to oral health: survey in Dae-Gu. *J Dent Hyg Sci* 2011; 11(3): 181-87.
13. Choi EM, Song YS. The dental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the pocheon city and the analysis of their oral health behavior.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1): 135-43.
14. Jo HS, Jeon KT. Factors associated with living satisfaction of studying in korean universities. *J Soc Sci* 2009; 20(3): 193-223.
15. Shin SH. Original articles : the oral health behaviors and knowledges of some foreign worker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1; 35(4): 474-85.
16. Wang W, Lee CS. Th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and hope on korean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J Soc Digit Policy Manage* 2013; 11(3): 397-405.
17. Kwon SJ, Lee EJ. The effects of oral health belief on Use of dental service of students of health and medical department of universities. *J Korean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3; 7(3): 83-93.
18. Jiang Y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university environment and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by chinese students in Korea[master's thesis]. Iksan: Univ. of Wonkwang, 2008.
19. Kim JA. Comparative study on recognition of quality of life between Korean and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n university[Doctoral dissertation]. Incheon: Univ. of Inha, 2008.